



들라크루아(Eugène Delacroix, 1798-1863년), <배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1858년, 유채, 61×76cm, 발터 미술관, 볼티모어, 미국

성화해설

예수님 일행이 탄 작은 배가 거센 풍랑에 좌초될 것처럼 보이자 제자들은 황급히 돛을 내리며 인간힘을 쓰고 있다. 배 가운데 타고 있던 한 제자가 손을 내밀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거센 파도를 잠재워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서는 세파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하느님이시다.

입당송 시편 28(27),8-9 참조

제1독서 욕기 38,1,8-11

화답송 시편 107(106),23-24,25-26,28-29,30-31(◎1)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배를 타고 향해하던 이들, 큰 물에서 장사하던 이들. 그들은 주님의 업적을 보았네. 깊은 바다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았네. ◎
- 그분 말씀에 사나운 바람 일자, 커다란 파도가 높이 솟았네. 그들이 하늘로 솟았다가 바다 깊이 떨어지니, 그들 마음이 괴로움에 녹아내렸네. ◎
- 곤경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자, 역경에서 그들을 빼내 주셨네. 광풍을 순풍으로 가라앉히시니, 거친 파도 잔잔해졌네. ◎
- 바다가 잠잠해져 기뻐하는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그분

은 이끄셨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배푸신 그 기적을. ◎

제2독서 2코린 5,14-17

복음환호송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 나타났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마르 4,35-41

영성체송 시편 145(144),15 참조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오늘(6월21일)은 6월25일 '남북통일 기원 미사' 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저센 돌풍은 제자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배 안에는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분을 흔들며 깨웠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채시고 바람을 꾸짖으시어 호수를 잔잔케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 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제자들은 그렇게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모아줍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전해주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비록 저센 돌풍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온몸으로 느꼈다 하더라도,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황급하게 깨우면서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실상 제자들과 한 배 안에 같이 자리하고 계셨으니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면서 그분께 대한 믿음과 확신의 끈을 한순간에 놓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자기가 바라던 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가는 현실 앞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 자신 안에 자리하고 계셨던 주님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한 주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경우가 혹시 없었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살아왔기에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육에게 어느 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시련이 밀어닥쳤습니다. 그가 감내하기 힘들었던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맞섰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 (욘 42,3,6).

그렇습니다. 육처럼 우리 방식대로 주님을 인식하려는 낡은 신앙의 태도를 이제는 떨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신분이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남는 것은 행복과 기쁨 아닙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도록 두려움의 장벽을 헐어 내 주십니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 4,40).

즐거운 고통



이상용 헨리코 | 방송인

저는 주님의 은총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없었을 제가 지금 이 글을 쓴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날 때 영양공급이 안 돼서 너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눈물을 머금고 저를 없애기로 합의하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이 저를 캐서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틀간을 물 한 모금 못 먹다가 살아났고, 다섯 살까지 누워서 앓다가 여섯 살에서야 걸음마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책가방을 못 들었을 정도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약하고 기구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열한 살에 아령을 시작해서 열여덟 살에 미스터 대전고, 미스터 충남이 되어 고려대에 입학했습니다. 1966년도 미스터 고대, 고대 응원단장을 지내고 ROTC 장교로 임관하여 탱크 소대장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전역한 후에는 여러 가지 외판원을 하다가 연예계에 들어와 건강의 상징인 ‘뽀빠이’가 됐습니다.

이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 있습니까?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하느님께 너무 감사하고 아무 데나 쳐다보고 인사하고 싶을 정도로 고맙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보다 무서운 것이 포기입니다. 어려움이 닦혔을 때마다 주님께서 시험하신다 생각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정말로 신념은 환경을 이깁니다. 저는 늘 역경을 이겨낸 분들의 글을 읽고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역경을 한번 보시

겠습니까? 17세, 22세, 29세에 말라리아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19세 때 천연두에 걸리고, 20세에 늑막염으로, 35세에 급성이질로 죽을 뻔했고, 43세에 치아가 다 빠져 고생하다가 43세에 미국 혁명군 사령관으로 독립운동을 지휘하고 승리해서 국민적 영웅이 되고, 12년 후 55세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교우 여러분, 힘나시지요? 고생은 사람을 만들고 편안함은 괴물을 만든다 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1828년에 러시아에 태어난 아주 못생긴 소년을 한번 보시지요. 그의 넓적코는 숨만 쉬는 데 사용할 뿐 너무 주저앉아서 안경을 못 쓸 정도였습니다. 입술도 너무 두꺼워 그냥 식사할 때만 사용할 뿐이고 눈도 작은 회색 눈이었습니다. 못생긴 외모를 비판만 하다가 인생을 포기하려는데 친구가 그에게 “인생의 행복은 외모에 있지 않고 내면의 풍요로움에 있다”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념을 확고히 하고 글을 씁니다. 그는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톨스토이보다 잘 생기셨죠? 여러분 행복한 고민하지 마시고 고통을 즐기십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줄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25

피임과 낙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피임과 낙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들은 성의 문제에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쾌락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 속에는 출산을 자기 성취의 방해물로 여기는 자기중심적인 자유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관계의 결과로 생겨날 수 있는 생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여야 하는 적이 되며, 낙태는 피임이 실패할 경우에 유일하게 남는, 선택 가능한 결정적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13항>

피임과 낙태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성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거슬러 생명을 공격하는 사고방식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뿌리를 지닙니다. 인공 피임방법이 많이 보급된 국가들에서도 여전히 낙태율은 높습니다. 근본적으로 쾌락주의와 자기중심적 자유를 따르는 가운데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세대에서 피임의 실패는 곧 낙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피임과 낙태를 하는 마음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초기 단계에서 낙태를 시키는 약들이 피임약이라는 이름으로 용이하게 보급되는 현실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피임과 낙태를 확산시키기 위한 약품 생산과 연구에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그분께서 이루신 것처럼,
큰 백성을 살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창세 50, 20).**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넘긴 형제들을 보며 주체할 수 없는 미움에 사로잡혀 복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느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눈물로써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어렵고도 힘든 일이지만 이제 하느님의 권능과 영광을 통해서 남북간의 갈등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에 북한은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는 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지 남북간의 갈등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동족 간 전쟁의 참화로 지난 60년간 얼마나 아픈 시간을 보냈는지 잘 알고 있다면 무모한 핵개발을 통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권력을 선택하지 말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그리고 시민의식의 성숙을 통한 사회발전을 통해서 창출되는 권력을 지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놓고 ‘내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북한당국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내적 의식이 ‘남과 북이 다르다’는 현실을 ‘북한은 잘못되어 있다’는 쪽으로 인식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우리가 외면하거나 버리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돌발적 상황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과 정책 수립 없이 내리는 결정은 자칫 남북관계에 커다란 어려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염려됩니다.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위기는 세계적 경제 위기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화해는 어려운 일이지만 세계안보와 미래 평화공존의 필수조건”이라며 전 세계 분쟁지역의 화해를 촉구하셨습니다. 교황님의 부활절 메시지는 북한의 2차 핵개발과 로켓발사를 계기로 긴장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한반도에도 절실한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일에 더욱 열심 해야 합니다. 새터민들을 돌보고, 식량과 생필품과 의약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하며,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은 언젠가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어로 승화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소식

오늘(6월21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가톨릭 기도서 99쪽)’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28일(일)은 ‘교황주일’ 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사제의 해’ 교황청 내사원 전대사 교령

교황청 내사원 전대사 교령에 따르면 ‘사제의 해(2009년 6월19일~2010년 6월19일)’ 동안 특별 대사의 은총이 수여됩니다. 신자들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제의 해 개막일이나 폐막일,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50주년이 되는 날, 매달 첫 목요일, 지역직권자들이 정한 날에 성당이나 경당에서 미사 성제에 참여하고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 드리거나 자신들을 성화하고 선행을 하며 고해성사로 속죄하고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라 기도를 바치는 경우 전대사를 받음
2. 노인들, 병자들, 합당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모든 사람도 어떠한 죄도 짓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전대사의 세 가지 일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앞에서 제시한 날에 사제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질병과 고통을 바치는 경우 전대사를 받음.
3. 모든 신자는 사제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간청하며 주님의 기도와 성모승, 영광승을 다섯 번 바치거나 다른 승인된 기도문을 경건히 바칠 때마다 부분 대사를 받음.

6월 구역(반)장 월례연수 / 주제: 사도 바오로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6월22일(월)	불광동성당(지구자체)	
6월23일(화)	신내동성당	명일동성당
6월24일(수)	중곡동성당	역삼동성당
6월25일(목)	대방동성당	등촌1동성당
6월26일(금)	목동성당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6월24일 윤의병 바오로 신부(60세) 1950년, 납치
- 6월25일 김정문 루도비코 신부(48세) 1950년, 납치
- 6월25일 노기남 바오로 대주교(82세) 1984년, 용인

성 바오로 탄생 2000주년 ‘바오로의 해’ 폐막미사

6월28일(일)	낮 12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집전: 총대리 염수정 주교와 지구장 신부
6월29일(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집전: 총대리 염수정 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특수사목 사제관 관리인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가스보일러 자격증 소지자 / 6월27일(토)까지 우편 접수(전화문의 사절)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임신부 추천서
- 주소: (100-809)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사무처 / 제출 서류 반환 안 됨

바오로의 해 폐막 기념 사진전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과 평화방송·평화신문은 ‘바오로의 해 폐막 기념 사진전’ 을 개최합니다.

- 개막식: 6월24일 오후 4시, 평화화랑(주례: 정진석 추기경)
- 제1전시: 6월24일(수)~30일(화), 평화화랑
- 제2전시: 7월1일(수)~12일(일), 명동대성당 들머리

함께해요! 감사와 사랑 운동 2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손이 필요할때 ‘도와줍니다.’

교구청 알림

민족화해위원회 후원회 미사

- 때: 6월26일(금) 오전 10시30분
- 곳: 명동성당 내 소성당 / 문의: 727-2414, 5

한국 순교자 시성25주년 기념 연수

- 대상: 본당 여성구역장·반장
- 집전 및 강사: 장궁선 신부, 김길수 교수
- 때, 곳: 6월24일(화) 오후 2시-5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2269-0413 순교자현양회

노인미디어교육프로그램 ‘시니어 VJ특공대’ 모집

- 대상: 55-65세 20명(유경험자 우선 선발)
- 내용: 미디어 기획, 촬영, 편집 영상만들기
- 때, 곳: 7월1일-9월30일 매주(수) 14시-17시, 종로시니어센터 교육실·미디어트교육실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
- 주최: 서울대교구 노인사목부, (사)서울시니어아카데미 / 6월30일(화)까지 접수
- 문의: 765-8458(www.isenior.or.kr)

경찰서 유치장사목 봉사자 모집

- 대상: 유치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전달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세례·건강한 60세 이하 교우) / 주최: 경찰사목위원회
- 문의: 723-9471(www.catholicpolice.or.kr)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홈페이지(www.catholic.or.kr)에 서울대교구 및 산하단체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마리아의 종 수녀회	6. 28, 14시-16시	돈암동 본원	010-3065-8221
사랑의 씨튼 수녀회	6. 26, 19시30분	씨튼 피정의 집	011-9193-3005
성모 영보 수녀회	6. 28, 14시	과천 본원	010-8920-9423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심 수녀회	6. 28, 13시30분	성심수녀회 청원소	010-9562-3339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6. 28, 14시	다락 공부방(서울)	011-9731-0283
착한목자활동·관상 수녀회	6. 28, 14시-17시	지양동 수녀원	010-2871-8805

알림

모임

향심기도 심화피정

· 때, 곳: 7월2일(목)5일(일), 씨튼 영성의 집(주최)
· 문의: 041)733-2992~4(www.setoncent.or.kr)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1:1 개인지도식)

· 때: 7월3일(금)12일(일)9박10일(8일피정)/010-6847-7222
· 곳: 메리워드 교육관(주최: 예수수도회)/회비: 40만원

여성연합회 월례회

· 주제: 생명과 문학 / 문의: 778-7543
· 미사: 민병덕 신부/ 특강: 신달자(시인, 교수)

이나시오 영성연구소(예수회) 무료 월피정

· 주제: relax(릴랙스)/ 강사: 박병관 신부(중식제공)
· 때, 곳: 6월26일(금) 10시-16시, 서강대 이나시오관 강당(미사있음·개인 물컵지참) / 717-3869

제7차 젊은이 피정 '날자, 나는거야'

· 때, 곳: 7월4일(토) 15시-5일(일) 15시, 한마음수련원(의정부) / 문의: 010-2871-8805 착한목자 수녀회, 010-2882-6227 마리스타 수사회

젊은이 침묵피정

· 대상: 청년 신앙인(선착순 마감) / 회비: 1만5천원
· 때, 곳: 6월28일(일) 9시30분-17시, 마리아의 딸 수도회(주최) / 문의: 2648-7134, 011-686-7134

하느님을 갈망하는 젊은이를 위한 피앗모임

· 때: 6월28일(일) / cafe.daum.net/fiatmeeting
· 곳: 정릉 수녀원 / 010-5247-8913, 010-3825-4999
· 주최: 원죄없으신마리아수녀회, 클라렛 선교수도회

젊은이와 함께하는 작은 목주기도 모임

· 때, 곳: 6월26일(금) 19시30분, 성 빈센트 청소년 열렬터 / 문의: 926-3440, 010-8833-8107
· 주최: 성 빈센트 드블 자비의 수녀회 본원(수원)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철야기도

· 때, 곳: 매주(화) 22시30분-4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강론은 유명강사가 하며 매주 바뀜)

세계 성령 사제 초청 특별 대피정

· 찬양: 요영민과 선교제상(회비없음) / 874-6346
· 강사: 예수회 로버트 웨리시 신부(중식제공)
· 때, 곳: 6월26일(금) 9시30분-17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011-277-0317 삼성산 사랑의 성령봉사회

영적성장을 위한 감성수련

· 주제: 화 제대로 내기(강사: 문종원 신부) / 중식제공
· 때: 6월30일(화) 오전 10시-17시(회비: 1만원)
· 곳: 가톨릭회관(미사도구 준비) / 010-3078-5249

제2차 성소식별피정 '너 어디있느냐?' (창세3,9)

· 대상: 젊은 미혼여성 / 회비: 4만원
· 때: 7월3일(금) 오전 6시-7월5일(일) 오후 4시
· 곳: 영성의 집 / 010-2859-7765 전교가르멜 수녀회

가정회복을 위한 기도과 미사

· 집전: 유용덕 신부 / 011-245-0121, 016-9282-2422
· 때: 6월22일(월) 13시30분-17시(기도: 박용해)
· 곳: 말씀의 선교 수도회(주최) / 전철 2호선 아현역 2번 출구에서 05번 마을버스 종점

마리아니스트영성을 통한 '하느님현존체험' 1일 침묵피정

· 대상: 성인(선착순 마감) / 주제: 하느님 현존과 상상의 침묵(미사준비·필기도구 준비)
· 때, 곳: 7월5일(일) 9시-17시, 마리아니스트 영성센터(주최) / 2648-7134, 010-3311-7134(회비: 1만5천원)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2박3일 치유피정

· 강사: 최봉도 신부(회비: 11만원) / 011-9503-0228
· 계좌: 부산 045-01-0375520 (제티없으신마리아성심)
· 때: 6월26일(금)-28일(일), 8월14일(금)-16일(일)
· 곳: 마리아 피정 센터(주최)부산시 남구 우암2동

교육

서울카리타스심리상담센터 모래놀이치료사 2급 교육

· 때: 7월14일-9월29일 매주(화) 19시-22시 / 776-7726
· 성령선교수녀회 젊은이 프로그램

성령선교수녀회 젊은이 프로그램

· 주제: '빛내음' 떼제 기도모임 / 010-5730-6322
· 때: 매주(월) 오후 7시30분 / sspskorea.org

교회와 사회의 새로운 소통 방법 모색

· 때, 곳: 6월22일(월) 14시-18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층 강당 / 발표자: 김민수 신부, 강수돌 교수
· 문의: 011-773-7275 한국 가톨릭 문화연구원

도농 직거래 활성화 심포지엄

·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함
· 때, 곳: 6월23일(화) 14시-17시 명동성당 코스트홀
· 문의: 777-2013(팩스: 778-7427)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65차 한국티스타 지도자 과정 워크숍

· 대상: 청소년 성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선착순 50명, 당일접수 안됨) / 회비: 15만원
· 때: 7월6일(월)-9일(목) / 6월27일(월)까지 접수
· 곳: 가톨릭교리 신학원(해회동) / www.teenstar.or.kr
· 문의: 755-2629(kteenstar@hotmail.com) 한국티스타

예수회 성령쇄신 특강

· 주제: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 / 중식제공
· 회비: 1만원(선착순 460명, 당일접수) / 미사봉헌
· 강사: 로버트 웨리시 신부 / 통역: 심종혁 신부
· 때, 곳: 6월24일(수) 10시-16시30분, 서강대 이나시오관 강당 / 718-3896~7, 704-0266 후원회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문의: 587-9207)

심리치료 정서 장애, 대인관계부족, 자녀의 발달과정 문제, 가족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부모·가족(http://jinain.com)
심리검사(성인, 성인): 정서, 지능, 성격, 학습유형과 진로탐색 등

매종 프로그램(발달 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 문의: 011-219-2059 /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전문적 심리치료 상담 및 종합검사	자신감이 부족하고 수줍어서 왕따를 당하거나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학생 및 성인, 우울, 불안하고 긴장하여 자신의 일을 잘해내지 못하고 삶의 질이 저하된 학생 및 성인,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부모 및 부모자녀
--------------------	--

가리따스 방배 성서교육관 여름특강

· 곳: 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5분거리
· 문의: 525-7869, 525-7880 가리따스 방배 성서교육관

모세요경	강사: 최승정 신부(구약학) 7월6일(월)-7일(화) 10시-16시 / 회비: 3만원(중식제공)
시서, 지혜서	강사: 김혜운 수녀(광주 가톨릭대학교) 7월13일(월)-14일(화) 10시-16시 / 회비: 3만원(중식제공)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문의: 726-0700)

참자기 찾기 훈련	(6월25일(목)-27일(토)) 10시-12시-28일(일) 10시-17시 자신감, 주제성 찾기, 친밀한 관계
종합심리검사	정서적 역동과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총 7가지 검사와 검사해석

개인상담: 전문 상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원활한 대인관계 문제 해결
무료전화상담: (월-토) 10시-17시 / 문의: 726-0771

제 21기 목요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 때, 곳: 8월20일부터 매주(목) 19시40분-21시30분(총 32강좌), 서강대 K관 403호 / 705-8163 CLC 사무처

8월20일-9월17일	교회의 역사와 새로운 사명, 한국천주교회사 등
9월24일-11월12일	성서란 무엇인가, 기도와 삶 등
11월19일-29일	소공동체와 복음화, 죽음의 의미 등
3월18일-4월30일	존재의 근거문제, 성서와 계시 등
5월7일-5월28일	신학적 인간 이해, 이스라엘의 역사 등
6월4일-7월9일	신앙의 그리스도 마리아론 등

강사: 김현태·송용민·홍승모·박종양 신부/조광·노길명 교수회

모집

미래사목연구소 편집(및 광고) 디자이너 모집

· 문의: 010-5051-0788 / 접수: 7etemel@naver.com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미사

· 대상: 신우회 회원 및 관심 있는 교우 / 753-0815
· 때, 곳: 6월24일(수) 10시30분, 명동성당 내 소성당

삼성동성당 아프리카 선교 후원회(百花爛漫) 월례미사

· 대상: 회원 및 아프리카 선교 후원에 동참할 교우
· 때, 곳: 6월24일(수) 10시, 삼성동성당 / 512-0195

천주교 서울대교구 절두산 연례회

· 지향: 선종한 사제들, 불쌍한 영혼들, 조상들, 선종한 부모와 형제 자매들 / 010-7534-1866
· 때: 6월26일(금) 12시(연도)·13시(미사)

오기선 요셉 장학회 월례미사

· 대상: 모든 교우 / 2299-2296, 011-202-5145
· 집전: 황인국 몬시뇰, 오웅진 신부 외 사제단
· 때, 곳: 6월25일(목) 오후 3시, 명동성당 별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6월 월례미사

· 대상: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지역주민
· 집전: 김연중 관장 신부 / 문의: 2235-4000
· 때, 곳: 6월30일(화), 유락종합사회복지관 9층 강당

마뎀암재단 가족 여름미사

· 대상: 마뎀암재단 가족 및 자원봉사자, 후원자, 신자, 기타 희망자 / 722-6793, 010-3115-6327
· 때, 곳: 6월23일(화) 오후 2시, 대방동성당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구일 기도와 미사

· 내용: 구일기도 및 강의, 미사전후에 고해성사
· 때, 곳: 6월22일(월) 오후 2시, 수유1동성당
· 구속주회 본원: 매주(토) 오전 11시
· 문의: 598-1312, 010-4189-5755 구속주회 신부

서울경기 성모신심미사와 다락방 기도

· 미사: 배형진 신부(메시지 모임, 기도공동체 성가, 묵주 준비) / 017-321-1247 다락방 봉사회
· 때, 곳: 6월29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꽃봉헌 및 스카폴라 봉헌식 있음)

안내

해성보육원(국내입양 전문기관)

· 입양상담 및 미혼보육상담(살트르 성마로 수녀회운영)
· 문의: 032)874-3240, 875-3240(www.hschild.or.kr)

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문의: 582-6004, 6012)

· 기관 지속·단기보호센터 입소자 추가모집
· 방문요양, 방문목욕 대상자 추가 모집

아씨시 세계 젊은이 대회

·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주최: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 문의: 010-5313-0241
· 때: 7월29일(수)-8월14일(금) / 6월28일까지 접수

가톨릭합창단 제51회 정기연주회

-故 김수환 추기경 추모음악회
· 때, 곳: 7월4일(토)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곡명: 브람스 독일레퀴엠
· 티켓예매: 1588-7890(www.catholic-choir.or.kr)

성 바오로 병원 종합건강관리센터

· 2009년도 공단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영유아검진을 실시중(대상자분들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예약 바람)

· 때: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 958-2393, 2369

성 음악 연수(한국 세실리아 성 음악 협회)

· 내용: 그레고리오 성가, 오르간, 지휘, 발성, 작곡 등
· 주제: 2002년 로마미사 전례서(강사: 정의철 신부 외 17명) / 338-8978(www.cecilakorea.org)
· 회비: 20만원(접수마감일까지 입금시 1만원 할인)
· 때, 곳: 8월17일(월)-20일(목), 가톨릭대 성심교정

※교회단체 '알림' 게재 신청

· 전화: 727-2033 / 팩스: 753-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서울대학교 출판기관인 가톨릭출판사에서 매월 셋째 주 '문화마당' 란을 통해 신간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제의 해' 를 맞아 「아르스의 성자 성 비안네 신부」가 새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의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사제가 되려는 꿈을 좇아 평생을 인내와 겸손, 사랑과 고행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목자, 성 비안네 신부의 일생을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꿈이 없는 삶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 주며, 하느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 성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듯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기 안의 성성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아르스의 성자 성 비안네 신부

미셸 드 생 피에르 지음 | 심 바오로 옮김
값 9,000원 | 268면 | 148×210

감동과 재미, 행복을 선물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



신부님 은수권 한장 주실래요?

허영엽 지음 | 200면 | 8,000원

서울대학교 대변인 허영엽 신부가 은경축을 기념하여 지난 삶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교회 월간지 등에 기고했던 글들을 한데 모아 엮은 책입니다. 가족, 특히 부모님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제 생활을 통해 인연을 맺은 이웃들과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소박하고 진솔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책이 부디 삶의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작은 휴식과 기쁨이 되고, 참 생명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진석 추기경

봄비 내리는 새벽에 허영엽 신부님의 글을 읽다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마음이 치유되는 눈물이었습니다. - 작가 신경숙

책을 읽고 있으면 눈시울이 붉어지는게 꼭 제 이야기 같습니다. 신부님의 솔직한 필체 때문일까요? - KBS 아나운서 황정민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예수님의 마음

차크 드라포르트 지음 | 이창영 옮김 | 240면 | 8,000원



이 책에는 '예수 성심'을 공경하게 된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뜻, 복음과 삶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 성심에 대한 신학적이면서도 영성적인 해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가톨릭출판사 * 영업팀 02-360-9139, 9172 * 인터넷 가톨릭서점 www.catholicbook.kr

행복을 그린 화가 '르누아르' 전시회

- 입장권: 성인 1만2천 원, 청소년 1만 원, 어린이 8천 원
- 예매 및 문의: 1577-8968(www.renoirseoul.com)



관능과 환희의 인상주의 미술의 선구자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전시회가 9월13일(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있다. 이번 전시는 전 세계 40여 공공 미술관 및 개인 소장품 110여 점을 전시한다. 빛과 색채의 화려함으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화폭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작가의 예술철학을 느낄 수 있다.

관람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1천 원을 할인한다 (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1인까지 할인가능).

바오로 해 폐막 기념 공연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사도 바오로'

- 입장권: R석 2만 원, S석 1만 원
- 문의: 336-3170 트리니타스 음악원, 2269-0419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



서울대학교 사무처 전산정보실 '굿뉴스'는 바오로 해 폐막을 기념해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오로'를 연주합니다. 6월28일(일) 오후 4시, 여의도 KBS홀에서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경의 다른 부분을 적절히 인용해 작품에 내재된 사도 바오로의 정신과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사제의 해’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선종 150주년



2009년 서울대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 부제 서품: 6월25일(목) 오후 2시
 - 사제 서품: 6월26일(금) 오후 2시
 - 장 소: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체조) ← 잠실에서 올림픽공원으로 변경됨
- ※ 사제 서품은 식전 행사 관계로 오후 1시30분까지 입장 바랍니다.

수품자를 위한 기도

- 착한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서는 원하는 이들을 부르고 파견하시어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날로 풍성하도록 이끄시나이다.
- 이제 하느님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일생을 오롯이 바치며 살아갈 봉사자로 뽑으신
새 사제(부제) ()를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하나이다.
-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가며,
매일의 삶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 또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과 하나 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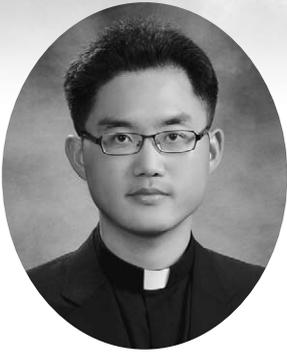
- 주님을 본받아
우리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명에 헌신하여
가난한 이들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 주님, 청하오니
새 사제(부제)들과 함께 하시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군세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게 하소서.
- 한국 교회의 후보이신 성모 마리아,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이 땅의 첫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 순교 성인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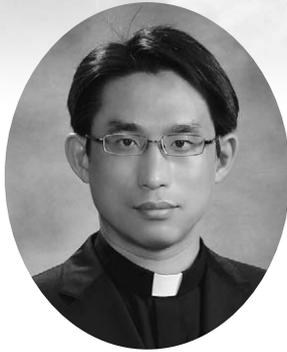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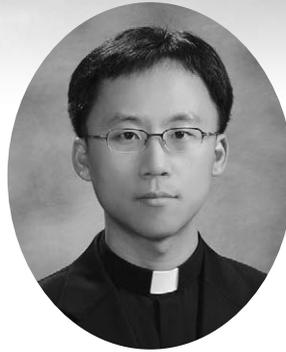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요한 10,11).



양경모(대건안드레아)
혜화동
(첫미사: 6월28일 오전 11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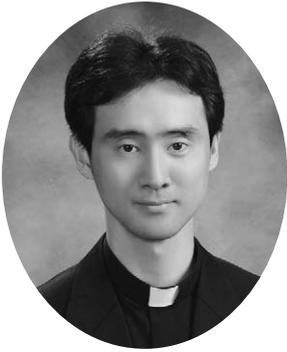
오석준(레오)
역삼동(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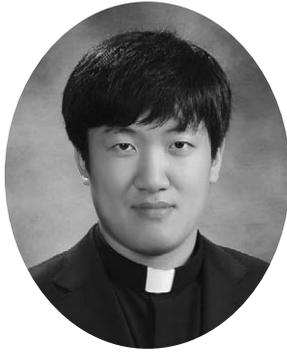
이은수(레오)
대치2동(낮 12시)



하성용(유스티노)
금호동(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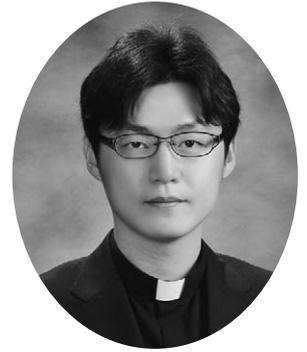
나종진(스테파노)
문정2동(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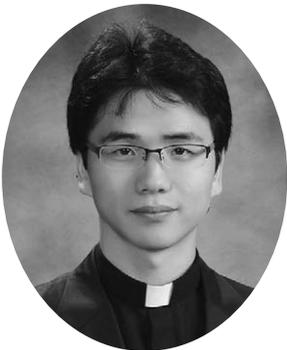
신광호(베드로)
신정동(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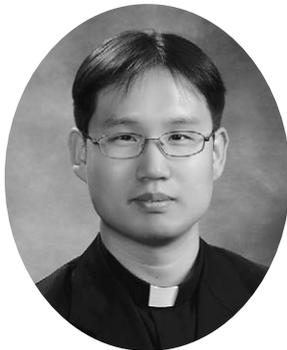
김현진(토마스 데 아퀴노)
개포동(오전 11시)



박태민(베드로)
세검정(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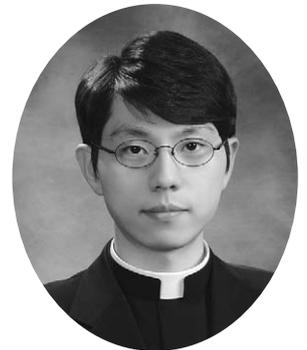
박진수(요엘)
서대문(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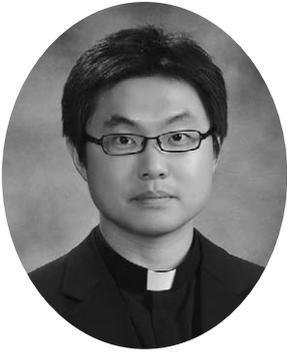
서성훈(바오로)
반포(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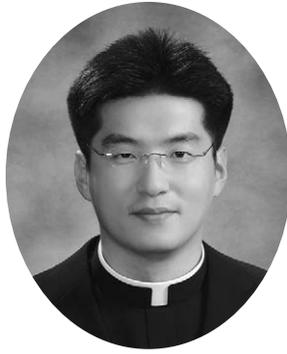
장이태(경환프란치스코)
등촌1동(오전 11시30분)



김승현(스테파노)
가락2동(오전 11시)



김형균(스테파노)
대림동(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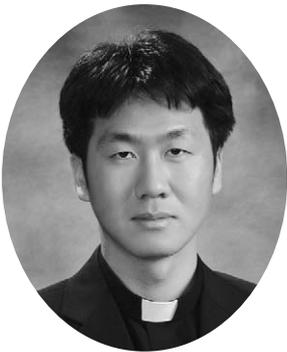
윤병우(미카엘)
서초동(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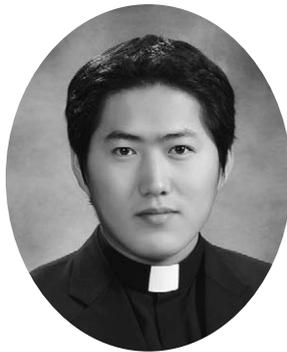
박민재(미카엘)
둔촌동(오전 10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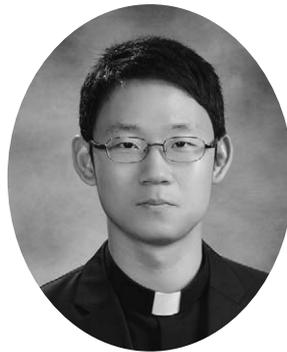
김승현(베드로)
송파동(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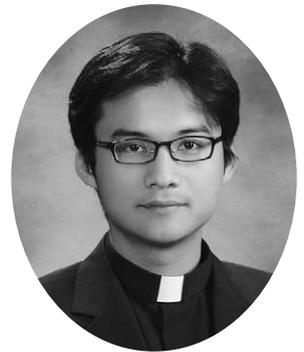
조성동(안드레아)
정릉4동(오전 11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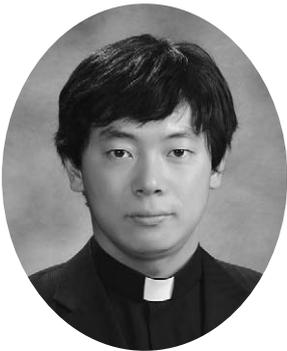
손태진(바오로)
신월1동(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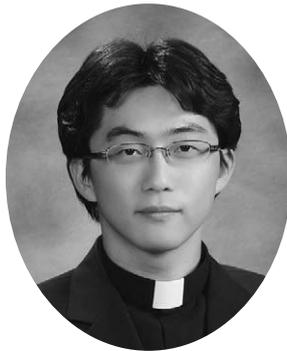
조창현(제피리노)
대방동(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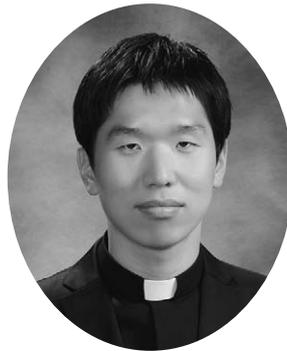
장경근(안드레아)
혜화동(오전 11시30분)



유상혁(세례자요한)
수궁동(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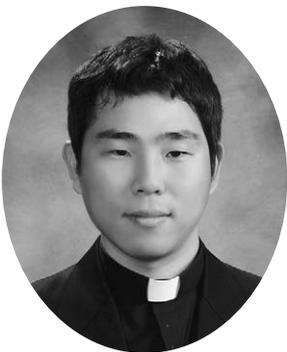
손호빈(디오니시오)
제기동(오전 11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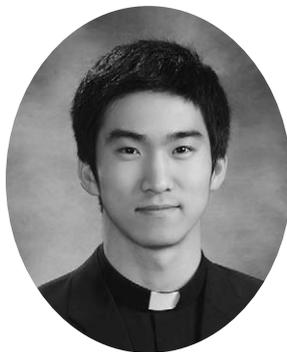
정성원(루치오)
독산1동(오전 10시30분)



박도진(파비아노)
문정2동(오전 11시)



차바우나(바오로)
연희동(오전 11시)



박진수(사도요한)
잠원동(오전 11시30분)



박민우(알베르토)
목5동(오전 11시)

사제 수품자
(서울대교구 27명)

부제 수품자(서울대교구 29명, 북경교구 2명, 수도회 4명)

나 창 식	안드레아	세종로
서 정 훈	클레멘스	갈현동
김 원 호	바오로	시흥4동
이 희 천	프란치스코	방배동
김 원 철	레오	청량리
이 원 석	베드로	왕십리
조 영 래	베드로	상계동
박 준 병	암브로시오	대방동
김 시 문	시몬	봉천동
김 덕 재	안드레아	역촌동
김 영 호	비오	문래동
신 동 원	요셉	암사동
진 슬 기	토마스 데 아퀴노	방배4동
김 경 진	베드로	성북동
권 오 영	프란치스코	창4동
최 현 목	마태오	한강
이 용 일	펠릭스	행당동
김 필 중	세레자요한	광장동

김 영 훈	베드로	고척동
나 연 수	안토니오	암사동
김 진 하	메토디오	정릉4동
함 민 규	미카엘	대림동
김 재 원	베드로샤넬	역삼동
한 승 현	펠릭스	구로2동
이 승 화	시몬	신천동
손 우 성	미카엘	석촌동
정 다 운	요한바오로	혜화동
이 규 동	가롤로보로메오	명동
백 종 호	요셉	수궁동

북경교구 및 수도회

백 국 량	아우구스티노	중국 북경교구(길음동)
조 위	베드로	중국 북경교구(길음동)
박 영 철	요한	작은 예수 수도회
박 현 철	대건안드레아	구속주회
왕 우 향	안토니오	말씀의 선교 수도회
한 건 무	바오로	말씀의 선교 수도회

서품식 참석 안내

- ▶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승용차를 비롯한 모든 차량은 개인이 주차료를 부담해야 하며,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차량만 출입이 허가됩니다(목·금요일 전자태그 부착 차량 출입 안 됨). / 문의: 727-2123, 4 성소국
- ▶ 서품식장 내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며, 개인 쓰레기는 각자 수거해 주십시오.
- ▶ 서품식 당일 본당별 야외사진 촬영 장소에 직접 현수막 설치가 불가능하므로 각 본당에서는 천막을 사용해 현수막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 원활한 전례를 위해 사진 촬영 허가증이 본당에 발급되지 않습니다.
- ▶ 당일 신학생 후원을 위한 현금이 있습니다.
- ▶ **평화방송 TV 부제·사제서품식 중계 방송**
 - 부제 서품 미사: 6월25일(목) 오후 10시10분(녹화방송)
 - 사제 서품 미사: 6월26일(금) 오후 2시(생방송)
 - 6월26일(금) 오후 10시10분(재방송)

- ▶ **출입문:** 성직자 1-1문(체육관 정문), 신자 2-1문
- ▶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 역 하차, 3번 출구(도보 5분)
- ▶ **버 스**
 - 동2문(올림픽공원역) 하차: 3412, 3413, 4213, 371
 - 남2문(경륜장) 하차: 3412, 3413
 - 남4문(평화의 문) 하차: 3412, 3413, 340
 - 올림픽회관 하차: 3312, 3316, 3411, 361

